



세계 2위 벨기에 '황금세대' 저무나



FIFA WORLD CUP Qatar 2022

2018년 러시아에서 벌어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 벨기에에는 대단한 축구를 뽐냈다.

벨기에에는 9골을 몰아넣고 2골만 허용하는 화려한 공격 축구를 펼쳐 3전 전승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이어 16강에서 일본에 0-2로 끌려가다가 후반에만 3골을 휘몰아쳐 3-2로 대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벨기에에는 여세를 몰아 '삼바축구' 브라질을 2-1로 따돌려 1986년 멕시코 대회 이래 두 번째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했다.

3·4위전에서 축구 중강 잉글랜드를 2-0으로 격파한 벨기에에는 3위로 대회를 마감하며 황금 세대의 전성기를 열어젖혔다.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벨기에에는 폭삭 늙어버렸다.

벨기에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약체 캐나다를 1-0으로 제압했으나 27일 모로코에 0-2로 완패해

노쇠한 주전들 체력 밀리면서 무기력 모로코에 0-2 충격패...16강도 불안 감독 "질까 봐 두려워하는 축구 한다"

순식간에 조 1위에서 3위로 미끄러움을 탔다.

캐나다를 4-1로 대파해 조 1위를 쟁한 2018 러시아 대회 준우승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벨기에에는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몰렸다.

벨기에 A 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최다골(68골) 보유자인 로베르 투카쿠(인터밀란)가 햄스트링 통증으로 제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탓에 벨기에의 창고는 더욱 무디다.

무엇보다도 '라스트 댄스'에 도전한 주전 선수들이 노쇠해 체력에서 경쟁 팀에 밀리는 게 가장 큰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기록업체 옵타에 따르면, 벨기에에는 이번 대회 캐나다와 모로코전에 평균 연령 각각 30세 181일, 30세 177일의 선수들

을 선발로 내보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옵타가 수집한 이번 대회 27경기 선발 출전 선수 나이를 봤더니 평균 연령 30세를 넘는 선발 출전 라인업을 두 번이나 짚 팀은 벨기에에만 있었다.

20대 '영건' 공격수가 대회 초반 크게 주목을 받는 상황이라 벨기에 주전들의 나이는 상대적으로 더욱 늙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선수들의 패배감이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벨기에 대표팀 감독은 영국 공영방송 BBC에 "선수들이 이기려고 준비하지 않고 질까 봐 두려워하는 축구를 한다"고 현재 문제점을 밝혔다.

벨기에의 플레이메이커인 케빈 데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가 대회 전 공식 인터뷰에서 "우리 팀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기에 너무 늦었고, 2018년 러시아 대회가 우승의 적기였다"고 언급한 것도 팀에 썩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마르티네스 감독은 "우린 아직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팀 전체가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고 경기를 치른다"며 부담을 줄여 크로아티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카타르 도하에서 27일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벨기에의 주장 케빈 데브라위너가 모로코에 두번째 골을 허용한 뒤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스페인에서 열린 데이비스컵 테니스 대회 결승에서 호주를 물리치고 우승한 캐나다가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축구 패배 아쉬움 캐나다, 테니스로 달렸다

국가대항전 데이비스컵 테니스 대회 사상 첫 우승

캐나다가 남자 테니스 국가대항전인 데이비스컵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캐나다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2022 데이비스컵 파이널스 결승(2단 1복식)에서 호주를 2-0으로 물리쳤다.

1단식에 출전한 테니스 사포발로프(18위)가 호주의 사나시 코키나키스(95위)를 2-0(6-2 6-4)으로 물리쳤고, 2단식의 펠릭스 오제알리아심(6위)이 엘릭스 디미노어(24위)를 역시 2-0(6-3 6-4)으로 꺾고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 250만 달러(약 33억4000만원)를 받은 캐나다는 2019년 이 대회에서 처음 결승에 올라 준우승했고, 이번에 첫 우승의 기쁨까지 누렸다.

데이비스컵은 대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테니스의 월드컵(The World Cup of Tennis)'라고 표기해놓은 남자 테니스 국가대항전이다.

호주 선수들은 전날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호주와 튀니지 경기 중계를 보며 이날 결승을 앞두고 전의를 다졌다. 현지 보도도 나왔다.

캐나다는 이날 축구 대표팀이 크로아티아에 1-4로 크게 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테니스 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데이비스컵을 자국 스포츠 팬들에게 선물한 셈이 됐다.

호주는 2003년 우승 이후 19년 만에 결승에 올랐지만 데이비스컵 패권 탈환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연합뉴스

골든글러브 후보 KIA 12명 올랐지만...나성범만 수상권

10개 구단 유일 전 포지션 후보에 12월 1일까지 투표...9일 시상식

2022 KBO 골든글러브 후보 89명이 발표됐다. KIA에서는 나성범을 비롯해 12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투수의 경우 규정인칭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선수가 후보가 됐다.

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팀 경기 수 X 5이닝) 이상 수비에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가 됐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2/3인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경우 명단에 포함됐다.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의 경우 기준이 충족된 포지션의 후보로 자동 등록됐다. 수비 이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타이를 홀더'의 경우 최다 수비 이닝을 소화한 포지션의 후보가 됐다.

투수 부문에서는 총 32명의 후보가 선정됐다. KIA에서는 양현종, 이이리, 정해영이 이름을 올렸다.

폰트, 김광현, 오원석, 노경은(이상 SSG), 안

우진, 요키시(이상 키움), 켈리, 플렛코, 이민호, 고우석, 정우영(이상 LG), 고영표, 소형준, 엄상백, 테스피아네, 김민수, 김재운(이상 KT), 루친스키, 구창모(이상 NC), 수아레스, 원태인, 뷔케넨, 오승환(이상 삼성), 반즈, 박세웅(이상 롯데), 스타크, 최원준, 객빈(이상 두산), 김민우(한화)도 투수 부문 후보다.

포수 부문에서는 7명이 골든글러브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

FA 계약을 통해 LG로 이적한 박동원은 KIA 선수로 후보가 됐다. 키움 이지영, LG 유강남, KT 장성우, NC 양의지, 두산 박세혁, 한화 최재훈도 명단에 포함됐다. 1루수 후보는 KIA 황대인과 함께 LG 채은성, KT 박병호, 삼성 오재일 등 4명이다.

2루수 후보는 총 7명으로 KIA 김선민, 키움 김혜성, NC 박민우, 삼성 김지찬, 롯데 안치홍, 두산 강승호, 한화 정은원이 후보로 등록됐다.

3루수 골든글러브를 놓고 KIA 류지혁을 포함해 SSG 최정, 키움 송성문, LG 문보경, KT 황재균, 롯데 한동희, 두산 허경민까지 7명이 경쟁한다.

유격수 부문에서는 KIA 박찬호, SSG 박성환, 키움 김휘집, LG 오지환, KT 심우준, 한화 하주

석 등 6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KIA 최형우, SSG 추신수, 롯데 이대호, 두산 페르난데스 등 4명은 지명타자 부문에서 경쟁한다.

외야수는 좌익수와 중견수, 우익수 구분 없이 3명이 선정된다. 후보는 22명으로 KIA에서는 나성범, 이창진, 소크라테스가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최지훈, 한유섭(이상 SSG), 이정후, 푸이그, 김준원(이상 키움), 박해민, 홍창기, 김현수(이상 LG), 배정대, 조용호(이상 KT), 손아섭(이상 NC), 피렐라, 김현준, 구자욱(이상 삼성), 전준우, 피터스(이상 롯데), 정수빈, 김재환(이상 두산), 터크먼(한화) 등이 후보가 됐다.

KIA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전 포지션에 후보를 배출했지만 나성범만 수상권에 있다. 지난해에는 수상자 배출에 실패했다.

한편 골든글러브 투표는 12월 1일까지 시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할 취재기자과 사진기자, 중계 방송사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골든글러브 주인공은 12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학다리고, 아테네 금 정지현 초청 김원기 스포츠인문학 아카데미

함평학다리고등학교(교장 김선구)는 최근 학교 시청각 실 및 레슬링체육관에서 '2022 김원기 스포츠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테네올림픽 레슬링 -60kg 금메달리스트' 정지현(40)씨가 나서 전남 레슬링 꿈나무들과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자신의 선수시절 경험 등을 들려줬다. 레슬링 특강에서는 노하우 등을 전수, 후배들의 꿈을 응원했다.

정지현씨는 "어린 선수들의 열정을 느끼면서 오히려 좋은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다"며 "후배 선수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구 교장은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자신만의 기술 습득, 실력 향상 기회를 마련

해주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데시벨
- 2관 올빼미
- 3관 동감, 아마겟돈 타임
- 4관 데시벨
- 5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자백
- 6관 올빼미
- 9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 7관 씨네커플 동감, 인생은 아름다워
- 8관 씨네커플 올빼미, 동감, 스트레인지 월드,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임학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오페라단 2022 송년음악회 금년새와 함께하는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I>
일시 : 2022. 12. 3.(토) 17:00
2022. 12. 4.(일) 17:0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문의 : 062-412-2507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 I 피노키오
일시 :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6